

국어의 hiatus 회피 거부 현상

성 인 출*

〈목 차〉

I. 서론

II. 본론

1. 형태소 내부에서 hiatus
2. 복합어에서 hiatus
3. 체언과 조사의 통합에서 hiatus
4. 어간과 어미의 통합에서 hiatus
5. 용언의 어간과 접미사의 통합에서 hiatus
6. 감탄사와 의성어에서 hiatus

III. 결론

참고문헌

I. 서 론

1. 언어사용에서 모음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V+V) 이를 모음 충돌(hiatus)이라고 한다.¹⁾ 이는 조화의 원리에서 볼 때 자음 모음으로 이어지는 것(C+V)보다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음양의 조화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음운 연결에서도 자음 모음의 연결이 모음 연속 연결(V+V)이나 자음 연

* 계명대학교 박사과정

- 1) ㄱ. 모음 연속 연결 즉 V+V에서 앞의 V는 하향 이중 모음이 아닌 모든 모음을 말하며 뒤의 V는 상향 이중 모음이 아닌 모든 모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모음 연속 연결이 순수 모음의 연속 연결이라는 뜻이다. 즉 반모음은 반자음으로 보기 때문이다.
 ㄴ. 모음 충돌 현상은 Alexandria의 문법학자들에 의해 최초로 문법 현상으로 기술되었다. 이 현상을 지칭하는 술어 'hiatus'는 라틴어의 동사 hio '열다'에서 파생된 낱말이며, 이는 그리스어의 $\chiαιμαδα$ ($<\chiαιω$, '열다')의 번역이다. (Allen, 1938:90 ; Babinotis, 1976:162) 유재원(1985:2)에서 다시 인용한 것임.

속 연결(C+C)보다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이다.²⁾ 그러나 실제 우리의 언어 사용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 이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모음 연속 연결 즉 hiatus 발생시 “형태론상 또는 의미론상 지장이 안 생기는 범위에서 이를 극력 배제하려는 경향이 일반 언어사의 공통되는 현상이다.”(이승녕, 1947 : 50) 국어에서도 모음 충돌이 일어날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모음 탈락, 반모음화, 중간 소리되기, 자음 삽입 등의 여러 방법이 동원되어 가능한 편리한 발음법을 선택하게 된다.

2. 그런데 국어의 몇몇 어휘나 형태소 결합에서는 전연 모음 연속 연결(hiatus)을 피하지 않고 발음하는 현상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 |
|--------------------------------------|-----------------------|
| (1) a. 거울, 마음, 매우 | b. 게으르다, 배우다, 어울다. |
| (2) a. 코에, 개(犬)이다 ³⁾ , 나의 | b. 더운, 비우다, 피어도, 지어라. |

위(1)은 형태소 내부에서 볼 수 있는 hiatus이고, (2)는 형태소 경계에서 볼 수 있는 hiatus이다. 위 예들도 언어 일반적인 경향인 모음 충돌(hiatus) 회피 현상에 따른다면 당연히 회피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예들과 같은 것은 전연 그런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런 예와 같은 것들은 어째서 hiatus회피 현상을 거부하고 있을까?

3. 지금까지 hiatus 회피 현상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hiatus 회피 거부 현상에 대해서는 필자의 과문인지 몰라도 별반 논의가 없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본고의 목적은 현대 국어(한자어, 외래어 제외)를 대상으로 hiatus 회피 거부 현상을 보이는 어휘들과 형태소 통합형을 조사하여 왜 hiatus 회피 현상을 거부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2) 언어의 가장 자연스러운, 보편적인 음절 구조는 ‘자음+모음’으로 이루어진 CV형으로 파악되고 있다. 언어마다 음절 구조에 차이가 있지만, 모든 언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구조는 CV형이기 때문이다. (Sloat, Taylor, Hoard 1978), 최윤현(1990:77)에서 다시 인용한 것임.

3) ‘개(犬)이다’는 ‘개다’가 일반적이고, ‘개이다’는 주로 문어에서 사용된다.

4. 본고에서 대상으로 한 어휘는 「새 우리말 큰 사전」(신기철 신용철 편저, 1974, 서울 신문사)에서 hiatus를 이루고 있는 표준어는 모두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논의의 근거로 삼기 위해 방언과 고어도 인용하였다. 그리고 사전에 실지 않은 용언의 활용형이나 사동·피동 접미사가 개입되면서 발생하는 hiatus는 일일이 열거하기는 너무 분량이 많으므로(또 다 다루어야 할 필요도 없으므로) 필자의 생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만 임의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뽑아 낸 어휘들도 일률적으로 배열하지 않고,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필자 나름의 기준에 따라 다시 분류하여 나열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어근에서 분화한 여러 어휘들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으면, 하나만 예로 들었다.

II. 본 론

1. 형태소 내부에서 hiatus

- (3) a. 가운데, 가웃(半), 가을, 가이(없-), 겨우, 겨울, 고을, 나아(가다/오다), 나이, 다음, 두어, 두엄, 마을, 마음, 메아리, 무엇, 무우>무, 부엉이, 부아, 부엌, 사나이, 사이, 새우, 서울, 시울, 아우, 아욱, 아이, 애오라지, 어버이, 여우, 이육고, 저울, 제웅. 처음
b. 그웁하다. 그웁다. 배우다. 싸우다. 어이다>에다⁴⁾, 여의다.

(3)의 예들은 언어 일반적 경향에 의하면 당연히 hiatus 회피 현상을 보여야 하는 데도 아주 안정적으로 모음 연속 상태 그대로 발음되고 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아마 (3)의 예들이 처음에는 hiatus가 아니고, 두 모음 사이에 자음(또는 반모음)이 개재되어 있었으나 인접음의 영향으로 자음(또는 반모음)이 소멸(탈락)한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다. 다음 (4)를 보자.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음운론적 변화 과정은 생략한다.

- (4) a. 가운데(가뵤디), 가웃(갹(半)+웃>가뵤>가웃), 가을(ᄫᆞᆯ), 가이(없-),

4) ‘어이다’는 지금 ‘에다’로 쓰고 있어 hiatus가 아니다. 그러나 같은 어근에서 나온 ‘어이기’: 바느질할 때 곡선으로 된 부분을 조금 빼어 놓는 일’란 어휘가 있어, 일부러 드러낸 것이다.

겨우(겨요), 겨울(겨슬), 고을(古邨), 나아가다/오다(나아가다/오다), 나이(나히), 두어(두서/두셔), 두엄(두흙), 마을(마술), 마음(마슴), 메아리(메소리), 무엇(므섯/므섯/므섯,므슴)⁵⁾, 무우(무수)>무, 부엌이(부헝이/부헝), 부아(부화), 부엌(브엿), 사나이(스나히), 사이(스히), 새우(사비), 서울(셔불), 시울(시불), 아우(아스), 아욱(아혹)⁶⁾, 아이(아히), 아버지(아버시/아버시), 애오라지(애야로시/애야리시/애야라이/애야리), 여우(여스/여스), 이육고(이육고), 저울(저불)⁷⁾, 제웅(제웅), 처음(처엿)

- b. 그웁하다(그웁하다/그웁다), 그웁음(그웁름), 배우다(빅호다), 싸우다(싸호다/사호다), 어이다>에다(어히다>어이다>에다), 여의다(여히다/여히다).

위 (4)의 () 속의 어휘들⁸⁾을 볼 때 (3)의 어휘에서 나타나는 hiatus는 분명히 두 모음 사이에 개재되어 있던 자음(또는 반모음)이 소멸(탈락)하면서 일어난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3)의 hiatus 회피 거부 현상은 두 모음 사이에 개재되어 있던 자음이 소멸(탈락)한 흔적으로 음절 경계가 남아 유지되는 것이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5) ㄱ. a. 므술히 盛하야 들기 소리 서르 들리고(月釋1: 46)

b. 막을

ㄴ. a. 벌게/벌거지(방언)

b. 벌에 중상이 드와락 하야(월석1: 12), 벌에 곤: 昆 (훈몽 下3)

ㄷ. a. 어불다(방언)

b. 숨은 어울씨라(訓正註解)

5) '므섯/므섯/므섯'이 같은 시대의 문헌에 나오지만 '몫섯/몫섯'보다 '므섯'이 'ㅅ>ㅌ>ㅇ'으로 본다면 후대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좀 후대에 '므섯'이 나오고 그 뒤에 '므엿'이 나오며, '므섯/므섯/므섯'과 같은 시대에 '므슴'이 나오며 그 뒤로 '므스'가 나온다.

6) '아욱'에 대해서 김형규(1990,40,267)에서는 '아부개'를 原語로 추정하 "abugā>abug>ahug>aug"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아북'은 방언(경북, 경남, 함북, 함남(김형규, 1982, 상 201))에서 볼 수 있고 문헌에는 '아혹'(杜解8:32, 辟瘟新方18, 譯語下10)이 보인다.

7) '저불'은 鷄林類事에 '稱曰雌字'을 남광우(1982,420)에서 옮긴 것이다. 경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저울'을 '정울'(김형규, 1982, 상327)이라고 하는데, 이는 hiatus 회피를 위해 ㅇ이 개입한 것이라고 본다.

8) 출전을 밝히는 것이 당연하나 이미 잘 알려진 어휘이고 출전을 밝히는 것이 도리어 이해와 기술에 번거로운 것 같아 생략하였음.

ㄹ. a. 버버리/버부리(방언)

b. 乃終내 버워리 아니 드외며(월석17 : 52), 버워리 아 : 癰 (훈몽中34)

ㄱ. a. 山脊에 몸 오르거늘(용가 109장)

b. 또 命終하샤 올라 忉利天에 나샤(월석1 : 20)

(5)의 예에서 b는 a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b에서 음운 첨가되어 a가 되었다기보다, a에서 음운 탈락되어 b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4)에서 보았듯이 언어 일반적 경향이기 때문이다.(그렇다고 이런 경향이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방언형이 古形일 가능성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⁹⁾.

(5ㄱa)의 ‘ㅁ술’은 방언의 ‘ㅁ실’을 감안하면 ‘ㅁ술>ㅁ술>ㅁ을>마을’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되며, (5ㄴb)의 ‘벌에’는 방언의 ‘벌게’를 감안하면 ‘벌게’에서 /ㄱ/이 /ㄹ/ 다음에서 없어져 ‘벌에’가 되고, 이것이 다시 오늘날의 ‘벌레’로 되었다고 보며, 그리고 오늘날의 ‘버리지’도 방언의 ‘벌거지’가 /ㄱ/이 없어져 ‘벌어지’가 되었다가 다시 ‘버리지’로 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이 두 어휘의 변화과정에는 하나의 차이가 있다. 즉 ‘벌에’가 ‘벌레’로 되는 과정에서는 /ㄹ/ 첨가가 일어났으나 ‘벌어지’가 ‘버리지’로 되는 과정에서는 /ㄹ/ 첨가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어휘 변화에 반드시 하나의 음운현상만이 적용되는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둘 이상의 다른 음운현상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벌에’가 ‘벌레’로 된 것은 ‘벌게’에서 /ㄱ/이 없어지고도 ‘벌게’ 때처럼 음절 경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벌’의 발음 /ㄹ/을 설측음으로 발음하다가 현대에 와서 이것이 표기에 반영되어 ‘벌레’로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벌어지’의 ‘벌’의 발음 /ㄹ/은 /ㄱ/이 없어지고 한 동안 설측음으로 발음되다가 차츰 음절 경계가 약화되어 설전음으로 변하여 ‘버리지’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5ㄷ)의 ‘어울다’는 방언의 ‘어불다’로 볼 때 ‘어불다>어불다>어울다’의 과정을 밟은 것으로 여겨지며, 방언의 ‘어불다’는 ‘어불다>어불다’로 여겨진다. (5ㄹ)의 ‘버워리’도 방언의 ‘버버리’를 감안하면 ‘버버리>버버리>버워리’의 과정을 밟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방언의 ‘버부리’는 /ㄱ/와 /ㄴ/가 중화되면

9) 본고에서 출처를 밝히지않은 방언은 필자의 생활권과 관련된 동남 방언의 한 형태임을 의미한다.

서 원순모음화가 일어난 결과로 생각된다. 이는 '아버지>아부지, 어머니>어문
이, 허벅지>허복지, 거머리>거무리, 한 번>한 분, 두 별>두 불'과 같은 것으
로 볼 수 있다. 또 '버워리'가 지금의 '병어리'로 된 것은, 어떤 이유인지 밝히
기 어렵지만 '버워리'에 /ㅇ[ŋ]/이 개입하여 '병워리'가 되고 子音下 單母音化
현상에 의하여 '병어리'가 된 것으로 여겨진다. (5ㄱ)의 '올아'도 (5ㄴ)의 '오르
-'를 감안하면 '오르+아'에서 /·/가 탈락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올아'를
'오라'로 표기하지 않은 것은 형태소 경계를 의식한 발음 현상으로 (5ㄴ)의
'별에'와 마찬가지로 '올'과 '에' 사이에 짧은 休止(pause)가 있어 '올'의 발음 /
르/이 설측음이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5b)는 (5a)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비록 (5b)에서
음운이 소멸(탈락)하였지만 음절은 그대로 유지된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당시는 연철 표기가 일반적인 데도 분철 표기로 적은 것은 음절 경계를 나타
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5a)와 (5b)의 입장에서 볼 때 (3)의 예
들이 hiatus 회피를 거부하는 이유는 두 모음 사이에 개재하던 음운이 소멸
(탈락)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 (6) 가오리, 개암나무, 개운하다, 거웃(陰毛), 거위배(횃배), 게으르다, 고양이
광, 과일, 귀이개, 기우똥/기울다, 기웁쫄피, 기이다, 나우, 너울¹, 너울
너울, 누에, 누이, 또아리, 모이, 새알(물), 서운하다, 새알모끼, 씨앗, 씨
우적거리다/씨우적씨우적, 아우르다/어우르다, 아우러/어울러, 아우성,
애이(빨래), 어울렁더울렁, 우영, 이영, 자오룩하다, 자웁하다, 주얼, 지아
비/지어미, 타울(타울/거리다), 터울, 허우룩하다, 허우적, 희아리.

(6)의 예들은 음운의 소멸(탈락)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문헌으로는 확인
하기 어렵다. 그러나 어형의 일반적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음운 탈락 현상이나
또 대응적으로 사용되는 방언으로 비추어 볼 때 역시 (6)의 예들도 음운의 소
멸(탈락)에 의한 hiatus이라고 생각된다. 다음 (7)을 보자.

- (7) 가오리 - 가부리
개암나무 - 깨금나무
※이는 '개곰>개옴>개암, 개곰>개금>깨금'이 想定된다.
개운하다 - 깨분하다
거웃¹⁰⁾ - 거불, 꺾부지기

거위배(회충으로 아픈 배) - 거취배

게으르다 - 게그르다¹¹⁾

고양>광 - 고방

※이는 ‘고방>고방>고왕>고양>광’으로
‘호박>호박>호왕>호악>확’과 같다.

과일 - 과실(果實)(>과실>과일)

귀이개 - 귀히비개

기우뚱 - 찌불뚱¹²⁾

기름쫄피 - 지심-

기이다 - 기시다(몰래 숨기다)

나우 - 나붓(이) ※밥을 나우/나부시 담았다.

너울거리다 - 너불(>너울)거리다

※나울 - 나불, 너울너울 - 너블너블

누에 - 니비¹³⁾

누이 - 누비/누부

또아리 - 또바리, 따바리(김형규, 1982, 상312-313참조)

모이 - 모시(>모시>모이)¹⁴⁾

새앙 - 새강(>새앙>새앙)

서운하다 - 섭하다(섭+은+하다>서운하다)

세알모끼(세 줄을 치도록 이가 셋이 있는 대패) - *세날목기(날이 세
개인 목기)

씨앗(種子) - 씨갓, 씨가시¹⁵⁾

10) 신기철 신용철(1974)에서는 “①.음모, ×거부지기, 거부지 ②.수염이나 음모 같은 털”이라고 풀이하고, “임거웃 슈(鬚 在頤) 거웃 즈(髭 在脣) 거웃 염(髻 在類), 訓蒙 上28, 불거웃, 譯解”의 문헌자료까지 제시하고 있다. ‘거부지기, 거부지’가 이 사전에서는 비록 틀린 말로 처리하고 있으나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고, 또 필자의 고향 창녕에서는 음모를 ‘×거불, △꺼부지기’, 腋毛를 ‘저트랑 꺼부지기’라고하며, 외양간에 넣는 짚이나 풀을 ‘거불, 꺼부지기’라고 하며, 좀 긴 ‘티끌’을 ‘티거불, 티꺼부지기’라고 한다.

11) ‘게으르다’는 한국방언자료집VI(경북 p365)과 김형규(1982 상권p368)에 따르면 ‘게글-’을 볼 수 있다. 이 ‘게글-’은 한국방언자료집에서는 영풍, 봉화, 울진, 예천, 영양, 상주, 영덕에서만 나타났고, 김형규(1982)에서는 봉화, 영양, 안동, 예천, 울진, 영덕, 포항에서만 나타났는데, 함치되지 않는 영풍, 상주, 안동, 포항은 일부 지역의 현상으로 생각된다.

12) ‘밀기울-밀찌불’이 있고, 의미가 완전 대응적은 아니지만 ‘기웃기웃-찌뽕찌뽕’ 등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밀양, 울산 일부 지역에서는 ‘기불-’(김형규, 1982, 상391-2)로 쓰이고 있으며, 朝鮮館譯語 天文門에 ‘月斜 得二吉ト格大’가 있어 ‘기불-’이 확인된다. 그러면 ‘기불->기불->지불->찌불-, 기불->기불->기울-’이 想定된다.

13) 김형규(1982, 하권 p31)에서는 [nube, nubi, nibe, nwibi, nibi] 등을 볼 수 있어 ‘누에’는 통시적으로 /ㅂ/ 탈락을 겪은 것이 확실하다.

14) 김형규(1982, 상권 pp182-183)에서 [mofi, mose, mopfi, maji] 등을 볼 수 있어 ‘모이’도 /ㅅ/ 탈락을 겪은 것이 확실하다.

씨우적(씨우적/거리다) - 시부적(시부적/거리다)
 아우르다/어부르다 - 어부르다
 아울러/어울러 - 어불라
 아우성 - 아불(/어불)(竝)+성(聲)>아불성>아울성>아우성
 애이(빨래) - 아시>아시>아이>애이/애(빨래)
 어울렁더울렁 - *(어불렁더불렁)¹⁶⁾
 우영 - 우봉¹⁷⁾
 이영 - 마람(<므람<물(捲)+암)¹⁸⁾
 자오록하다 - 자보록하다
 자육(하다) - 자북(하다)
 주얼(: 현악기의 줄감개) - 줄(絃)+얼(레)>주얼
 지아비/지어미 - 집아비/집어미
 타울(타울/거리다) - *타불>타불(타불/거리다)
 터울 - 터불
 허우룩하다 - 허부룩하다
 허우적 - 허부적(<허불적) ※허불적>허불적>허울적>허우적
 회아리(: 약간 상하고 말라서 희끗희끗하게 얼룩진 고추) - 회나리

(6)을 (7)의 방언형과 비교한 것으로 볼 때, (6)의 hiatus도 두 모음 사이에 개재하던 자음이 소멸(탈락)하면서 생겼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것은 결국 (3)의 예와 마찬가지로 형태소 내부에서 모음 사이에 개재하였던 자음이 소멸(탈락)하고, 그 흔적으로 음절이 유지되어 일어난 hiatus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혹 이 hiatus 회피 거부의 원인을 연속된 두 모음의 강도가 같기 때문에 두 모음 중 어느 것도 탈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온당한 생각이 아니다. 왜냐하면 ‘가을, 고을, 마을, 마음’ 등의 예로 보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국어에서 /ㅡ/는 강도가 가장 약한 약모음이므로 모음의 강도로 본다면 /ㅡ/는 /ㅏ/의 앞이나 뒤에서 항상 탈락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을, 고을, 마을, 마음’과 같은 어휘는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
- 15) ‘씨앗’에 대한 김형규(1990,40)의 설명을 필자가 요약하면, 만주어 fisihe에 근거하여 ‘비시개>비시>삐>삐>가시/갓>삐가시/삐갓>씨가시/씨갓>씨아시/씨앗’으로 보고, ‘씨갓’이 충청, 강원 지역 방언에 쓰이고 있다고 하였다.
- 16) ‘어불렁더불렁’이 실제로 방언에서 사용되지는 않지만 표준어의 ‘어울다’에 대응적으로 ‘어불다’가 쓰이기 때문에想定된 어형이다.
- 17) 김형규(1982, 하권 p30)에서 [ubən, ubon, ubuŋ]을 볼 수 있어 ‘우영’도 /ㅁ/ 탈락을 겪은 것으로 본다.
- 18) 사전에 ‘이영 마람’이 보이므로 ‘마람’은 ‘이영’을 말아 놓은 것이고, ‘이영’은 ‘잇(連)+영>*이영>이영’으로 /ㅁ/ 탈락을 겪은 것이 아닌가 싶다.

예를 들어 ‘ㄱ술>ㅁ을>ㄴ을>가을>갈:’에서 ‘가을’의 단계는 없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을’과 畵를 같이하는 ‘고을, 마을, 마음’의 어휘들이 지금도 분명히 표준어로 살아 쓰이고 있으므로, 모음의 강도 때문에 hiatus 회피가 거부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어휘들이 차츰 구어에서 ‘갈:, 골:, 말:, 맘:’으로 쓰이고 있으나, 이는 새로운 음운현상 즉 hiatus 회피로 진행되는 것이지 결코 모음의 강도 때문에 일어난 음운현상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9)의 예참조)

(8) 가이손 - 시치미

- 개암² - 매의 먹이 속에 싸서 넣는 솜뭉치
- 개암물 - 시냇물
- 개암(이)들다 - 해산을 한 뒤에 후더침이 생기다.
- 개애리 - 오리과에 딸린 철새
- 겨울(<겨우루)
- 겨웃² - ① 눈이나 발을 갈아 넘긴 골 ② 그 골을 세는 단위¹⁹⁾
- 겨워벌레 - 밤바구미
- 고알띠 - 허리띠
- 고의 - ①속곳 ②袴衣
- 구을방울 - (옛날에) 격구하는 동작의 한 가지
- 구의 - 관청
- 구입 - 겨우 벌어서 먹음 또는 겨우 되는 밥벌이
- 기앗밥 - 지부지기(풀이름)
- 기애기 - ‘닭’의 심마니 말
- 기어이/기어코
- 기운(차다) - 힘차다
- 깨애리 - 꾸러미
- 파아리
- 나: 이³ - 무명(피륙)
- 너울¹ - 장옷
- 너울² - 놀: ,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나운 물결
- ※‘너울’의 모음 대응어 ‘나울’ 이의 준꼴 ‘놀:’
- 너웃너웃 - 뉘엿뉘엿
- 노아가다 - ※① 배가 빨리 가다 ② 말이 빨리 달려가다
- 노을(>놀: ²⁾)

19) 창녕 지역에서는 ‘겨웃’에 대하여 ‘갯, 가새’라고 하는데, 이는 ‘겨웃’의 준꼴 ‘갯’에 모음 대응적인 ‘갯’과 ‘갯’에 다시 첨미사 ‘-애’가 첨가되어 ‘가새’가 된 것으로 여겨 지는데, 시레기나 마늘 등을 엮은 것을 세는 단위로도 ‘갯, 가새’를 쓴다.

늪우치다

대우¹ - 이른봄에 보리나 밀을 심은 밭이랑이나 이랑 사이에 콩·팥·
깨를 심는 일

대우² - ① 갓모자 ② 대야

데악지다/테억지다 - 정도에 지나치게 크거나 많다.

되우새 - 가창오리

두억시니(斗玉神) - 사나운 귀신의 하나, 야차

두우쟁이 - 돌상어과에 딸린 민물고기

또에복숭아 - 감복숭아

매우 - 아주, 꼭

매웁스럽다/하다 - 알뜰게 어리석고 둔하다

모으다(集)

무에리수에 - 問數하라고 외는 소리

미웁스럽다/하다 - 됴됨이가 어리석고 미련하다.

배알 - 창자의 낮은 말

배웅 - 바래주다

부잇하다 - 빛깔이 약간 부여스럼한 듯하다

비웃(/구이/백숙/알/저나/젓/조림/죽/지짐이/젼) - 청어

비움>빔 ※설빔

사옥 - 앵도과에 딸린 갈잎 큰 키 나무

새옹 - 돛쇠로 만든 작은 술

시우쇠 - 선철

시육지 - 복어

씨야 - 목화씨를 빼는 기구

씨오시 - 기생 매미

아옹(거리다/하다) - ① 쪽 오무라져 들어가 있다. ② 속이 좁은 사람
이 자기의 뜻에 덜 찬 태도가 있다.

아우거리 - 흙덩이를 모조리 파 젓히며 김을 매는 일

애웁-살림/살이 - 가난에 쪼들려 고생스럼게 사는 살림살이

애운하다 - 섭섭하다

애이다 - 빼앗기다.

어웁새 - 억새의 옛말

어음 ※取音 '於音'

에우다 - ① 돌레를 빙 둘러싸다 ② 다른 길로 돌리다 ③ (장부에서)
쓸데없는 부분을 지우다 ④ 어떤 음식을 먹어 끼니를 때다

에오 - 出駕할 때에 世子宮 또는 議政府의 舍人, 檢詳, 兩司官員, 銓郎
의 앞에 서서 按籠이 옆에 끼고 가는 油紙 조각에 그린 짐승의
이름. 다리를 지날 때에 그 밑에서 헤치려는 악귀에게, 按籠이
'에오'하고 소리를 치면 달아난다고 하는 것임.

여암 - 附椽 끝 평고대 위에 박는 나무

예오 - 벽제 소리의 하나. 임금의 거동 때에 導駕使令이 앞서 나가며
외치던 소리.

오이

우어>워 - 소나 말을 멈추게 하는 소리
 어이 - '어찌'의 예스런 말
 이악스럽다/하다 - ① 기를 쓰고 끈덕지게 달라 붙다. ② 자기 利慾에 지나치게 아득바득하다.
 저어새 - 따오기과의 새.
 주악 - 떡을 쥔 때에 웃기로 쓰는 음식이 한 가지. 角黍, 糙角
 조이풀 - 선목단풀. 조의풀, 병조이풀.
 쥐악상치 - 앞이 아직 덜 자란 상치
 쥐알봉수 - 약은 피가 많고 잔줄한 사람
 지에밥 - 약밥, 인절미를 만들거나 술밑으로 씬. ×고두밥. 제밥.
 준말 계밥, 지에
 쥐알 - 찹부럭
 지우초 - 외나물(: 오이풀)
 지육하다 - 비슷하다.
 추알 - 쇠똥구리
 토악질 - 먹은 것을 게워냄
 파이 - ① 거만 됨. ② 아니 좋음
 파임내다 - 일치된 의논을 뒤에 와서 탄소리를 하여 그르치다.
 해우 - 김
 해우-값/돈 - 기생, 창녀들과 상관하고 주는 돈 花代 花債
 허우대 - 풍채가 있어 보이는 키
 허울 - 겉모양

위(8)의 예들도 hiatus 회피를 거부하는 예들이다. 이 (8)의 예들은 문헌으
 로나 또는 방언으로도 음운의 소멸(탈락)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리
 고 이 예들이 모두 음운의 소멸(탈락)을 겪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이 예들이 현실적으로 hiatus 회피를 거부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이 예
 들 중에서 hiatus 회피를 거부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몇 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울’은 이기문(1991, p195 각주18)에서 차용어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²⁰⁾
 만약 이 어휘가 차용어가 확실하다면, hiatus 회피를 거부하는 이유는, 차용어

20) 위 이기문(1991,p195)의 각주 18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통구스諸語의 鏡을 指示하는 語辭에는 이 외에 gārä (Castrén)가 있다. 指摘된 바와 같
 이 이것은 부리아트蒙古語 gerel(gerēt) ‘鏡’의 借用일 것이다. 여기에 索龍語는 gerel~geril
 ‘光’ 바르구진·통구스語는 gerel ‘光’으로서 對應하는 바 이것도 蒙古語에서 온 것이다. 蒙
 古文語 gerel, 칸카蒙古語 Gêrel ‘光’ 참조. 意味變化가 흥미있다. 中世國語의 ‘거우루’(鏡)가
 여기에 對應한다. keuru<*gerulu, 第二音節의 -r-의 消失을 경험하였다. 借用이라 하더라도
 古代에 卽 母音間 -r- 消失以前에 行해졌을 것이다.(이하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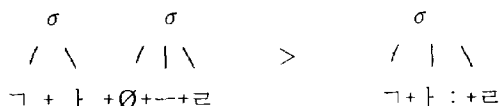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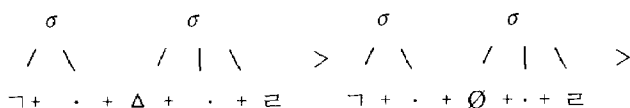
는 되도록 원음 그대로 模寫하려는 발음 의도 때문에 hiatus를 회피할 수 없다. ‘거웃’²¹은 ‘거웃’ (陰毛)에 견주어 볼 때 음운 탈락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고, ‘거위벌레’도 ‘거위배(희배)’와 비교해 볼 때 음운 탈락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의’는 ‘고알띠’로 추측하면 “고올”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즉 “고올 > 고올 > 고의²¹⁾”와 “고올 > 고알”이 상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가 한 어휘에서 두 가지 음으로 변화할 수가 있는냐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는 “고올띠”가. 허리띠의 하나이기 때문에 “고올띠”를 허리띠로 포괄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고올띠”가 화석형으로 남아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출현하게 되었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 어쨌던 ‘고알’과 ‘고의’가 음운탈락을 겪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너울’^{1,2)}도 ‘너울거리다’의 방언형 ‘너불거리다’에 견주어 보면 음운 탈락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우’¹⁾(갈이)에서 ‘대우’는 ‘되우’와 발음이 유사함에서 빚어진 것으로 확신되는데, (22)에서 언급되었지만 ‘되우’는 ‘되구’에서 /ㄱ/탈락한 것으로 뜻은 ‘되게’이다. 그래서 ‘대우갈이’는 ‘되게(뻑뻑하게)갈이’가 된다. 그리고 ‘데악지다/데억지다’의 ‘데악/억’도 ‘되(強, 密)+악/억’이 옳을 듯하다. 그런데 ‘되’는 ‘대(大)’와 음이 유사하므로 ‘대(大)’의 의미도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데악/억’이 ‘되악/억’이라도 자음이 탈락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그렇지만 형태소 경계에서는 hiatus가 일어나도 hiatus 회피가 거부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설명될 것이다. ‘모으다’는 ‘모드다’에서 /ㄷ/이 없어진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것은 동남방언에서 ‘모으자, 모아라’를 ‘모두자, 모다라’로 쓰는 경향이 있으며, 부사 ‘모두’도 그럴 가능성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웁스럽다/하다, 미웁스럽다/하다’의 ‘매웁, 미웁’은 ‘昧惑, 迷惑’에서 변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매혹>매웁>매웁, 미혹>미웁>미웁’의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본다. ‘애운하다’는 형태가 /ㅂ/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 ‘서운하다, 개운하다’와 같다. 그리고 다시 /ㅂ/이 유지되는 ‘차분하다, 지저분하다’와 비교해 보면, ‘애운하다’는 형태상 /ㅂ/탈락을 겪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어이’는 ‘어시>어이’가 아닌가 싶다. 그것은 ‘어시(父母)>어이’의 (비록 의미는 다르지만) 변화 형태가 있고, 또

21) ‘고올>고올>고의’에서 ‘ㄹ>ㅣ’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국어에 나타나는 음운현상의 하나다. 예를 들면 ‘물/물>뫼/미, 들 익다>데 익다, 도로(돌) 주다>되 주다, 오돌(개)>오되>오디, 활시울>활시워’ 등을 볼 수 있다.

‘어시>어지>어찌’가 가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정의 근거는 ‘손조’가 ‘손소’보다 후대에 나타나므로 ‘△>ㅈ’의 한 경향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 ‘어찌타-어이타, 어쩐-어인’ 등이 동일 의미로 임의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에우다’는 ‘어히다>어이다>에다’에서 사동 접미사 ‘우’가 개입하여 ‘에우다’가 된 것으로, 이는 형태소 경계에서 hiatus가 일어난 것이므로 hiatus 회피가 거부되는 것이다. ‘에오, 예오’는 ‘외오’에서 변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것은 지금도 동남방언에서 ‘원다’를 ‘엔다, 엔다’로 발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오’가 hiatus 회피를 거부하는 이유는 후술될 것이다(21.참조). ‘이악스럽다/하다’의 ‘이악’은 ‘利惡’으로 판단된다. ‘우악스럽다’의 ‘우악’이 ‘愚惡’ 것과 비슷한 경향이기 때문이다. 한자어에 hiatus 회피가 없는 것은 의미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도 다시 후술될 것이다(13의 설명 뒷부분 참조). ‘쥐알봉수, 쥐악상치’에서 ‘쥐’는 ‘小’로 ‘찌끔’의 ‘죄(>찌)’와 모음 대응적인 것이거나, 쥐(鼠)가 작으므로 비유적으로 쓰였거나 둘 중의 하나로 짐작된다. ‘알/악’은 접미사로, ‘쥐알, 쥐악’은 형태소 결합으로 생긴 hiatus이다. ‘지에밥’ 준말 ‘계밥’으로 보면 원형은 ‘기에밥’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기에밥>계밥’이 되고, ‘기에밥>지에밥>계밥’이 되기 때문이다. ‘기에밥’은 ‘귀예지’(귀구멍의 때)와 같은 방법의 형태 결합인데, ‘기’가 명사임은 짐작이 가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혹 한자 ‘基’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하여간 ‘지에밥’은 형태 결합에 의한 hiatus인 것으로 짐작된다. ‘파이’의 ‘파’는 ‘罷’가 아닌지 모르겠다. 그리고 ‘해웃-값/돈’의 ‘해우’도 ‘解憂’의 한자어가 아닌가 싶다. 그것은 의미상 잠시 ‘근심을 풀다’는 뜻이 흡사 ‘客苦를 풀다’와 의미상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정일 따름이고 확실한 근거는 없다. ‘허울’은 중세 국어 ‘형울’(蛻, 허물)에서 /ㅇ/이 탈락한 것이 아닌지? ‘허우대’도 ‘허울대>허우대’로 보면 ‘형울’에서 파생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몇몇 어휘들을 바탕으로 보면 (8)의 예들이 hiatus 회피를 거부하는 이유는 음운의 소멸(탈락)에 기인한 것이거나, 형태 결합에 의한 것이거나, 아니면 한자어에서 온 것이거나, 또는 차용어일 가능성이 있다. 단지 문헌이나 방언에서조차 그 자취를 찾기 어려울 뿐이지, 이 (8)의 예들도 앞으로 더 천착해 보면 hiatus 회피를 거부하는 이유가 밝혀질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음운의 소멸(탈락)은 어째서 일어나며, 또 음운이 탈락한 후에는 무엇 때문에 음절을 유지하여 hiatus를 이룰까? 음운의 소멸은 개별적 음운 현상의 탈락 또는 변화가 전체적으로 확산되어 음운 체계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며, 음운의 탈락 또는 변화의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발음 노력 경제성에 따른 앞 뒤 음운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음운이 탈락한 후에도 음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가능한 한 어형을 본래대로 유지함으로써 語義의 혼란을 막으려는 언중의 심리적 작용으로 여겨진다. 이를 ‘ㄱ술>ㄱ울>가울>갈:’을 예로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위 도식으로 볼 때 ‘ㄱ술>ㄱ울’에서 ‘Δ’이 탈락하여도 그 자리가 빈자리(∅)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약 이 빈자리가 없다면 ‘ㄱ울’은 동모음 삭제 규칙에 의하여 ‘굴:’로 바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는 음운이 탈락하여도 그 어형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語義의 인식에는 지장을 주지 않으려는 일종의 제약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하나의 음운 현상은 語義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전제 아래 노력 절약의 발음 현상이 시간을 두고 서서히 진행되어 어형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어느 기간 그 어형이 쓰이다가 다시 다음 단계의 음운 현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ㄱ술’이 ‘ㄱ울’이 되고 ‘ㄱ울’이 어느 기간 쓰이다가 다시 ‘가울’로 되어 다시 hiatus 회피 현상의 ‘갈:’로 되는 것이다²²⁾. 이런 변화 과

22) ‘ㄱ술’이 /Δ/이 없어지면서 바로 동모음 삭제 규칙이 적용되어 ‘굴:’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것은 우선 이렇게 급격한 어형 변화가 있으면, 언중의 의미 인식에서 혼란이 오기 때문이다. 언어는 어디까지나 의미 전달을 위한 사회적 약속 기호이므로, 언중이 그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급격한 변화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언어의 변화

정에서 본다면 ‘갈:’도 언젠가는 短母音의 ‘갈’로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9) ㄱ술>ㄱ올>가을>갈: , 가야미>개아미>개:미, 겨술>겨울>저울>절: 23),
ㄱ불>고을>골: , ㄱ술>마을>말: , ㄱ숨>마음>맘: , ㄱ야미>매아미>매:미,
매암돌다>맴:돌다, 무엇>무엇>뭇: , 무수>무우>무: , ㅂ암>배암>뱌: ,
새암>쌔: , 입시불>입시울>입술, 구운>굳: , 누은>눈: :

위 (9)의 예들은 음운이 소멸하여 hiatus가 이루어져 이것이 다시 hiatus 회피 현상으로 가는 과정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9)의 예로 미루어 본다면 (3)과 (6)의 예들도 언젠가는 hiatus 회피의 과정을 거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그것의 진행 속도는 인접한 음운의 자질과도 연관될 것이며, 또 사용 빈도와도 관련될 것이다. 아마 (9)의 예들은 그 진행 속도가 빠른 것이라고 본다.

2. 복합어에서 hiatus

ㄱ. 합성어에서 hiatus

- (10). a. 개-어귀, 귀-얹이, 귀-울음, 께-알, 노-오라기, 대-오리, 대-울, 메-오랑캐, 묘-아자나무, 배-얹이, 배-울/웃, 벼-알, 비-안개, 비-오리/비-오리, 비-웃, 비-이슬, 새-아기/아가씨/아이/아주머니/악시/엄마, 새-알/알심/알사탕/알콩, 소-이(齒), 쇠-오줌, 쇠-오리(상오리), 쇠-옹두리, 쇠-우렁이, 시-아버님/아버지/어머니/어미, 씨-알, 씨-암소/닭/말, 씨-울, 애-아버지/어머니, 외-어깨, 위-아래, 이-알, 이-얹이, 코-알, 피-울음, 혀-아래.
b. 개울, 여울, 여울여울.
c. 꺾-오다/올리다, 꺾-안다/입다, 나아-가다/오다, 나-가다/오다, 데-알다/익다, 되-알지다/올리다, 뒤-잇다, 타-오르다.
d. 따옴-표

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ㄱ술>ㄱ올>ㄱ을>가을>갈:’로 차례대로 서서히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23) ‘겨울’은 위에 도식한 변화과정 외에도 ① 겨술>겨울>겨울, ② 겨술>겨울>겨울>겨울>절:, ③ 겨술>겨울>겨울>계울 등의 변화과정이 있다.

위 (10)의 예들도 hiatus 회피를 거부하는 것들이다. 먼저 (10b)가 합성명사 인지부터 알아보기로 하자. ‘개울’은 방언에서 ‘개골>갱굴>개굴창>개굴찬>개구창>개구랑>개우랑>갱골>갠굴>깨굴창>깨굴창>깨고랑>깨우창’(김형규1982,상권21-22) 등을 볼 수 있어, ‘개굴>개울’ 또는 ‘개골>개울>개울’을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개펄, 갯마을, 갯바람, 갯지렁이’ 등으로 보아 ‘개울’의 어원형을 {개+굴(>울)} 또는 {개+굴(울>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개울’은 분명히 /ㄱ/탈락을 겪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여울’은 中世國語에서 ‘여홀’로 나타난다. “門알땡 조고맛 여흐리 다 平코져 亨돗다 : 門前小灘渾欲平(杜解10 : 4), 여홀탄 : 灘, 여홀 되 : 灘(訓蒙 上5), 간밤에 울던 여홀 슬피 우러 지내여다(古時調)” 그래서 ‘여홀>여울>여울’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의 ‘개울’을 감안할 때 ‘여울’은 {여+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는 ‘물 속에 잠겨 있는 바위, 암초’로 사전에서 풀이하고 있고, 또 섬 지방에서 바다 위에 솟아 오른 바위를 ‘여’라고 하여, ‘아랫여, 윗여’라고 부르고 있어, 사전의 뜻과는 좀 다르게 쓰이고 있지만 하여간 {여}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자립 형태소임에는 틀림없고, 또 {울}은 ‘홀>울>울’ 또는 ‘홀>홀>울’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개울’의 {울}과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ㄱ>ㅎ”을 감안하면 ‘굴>홀’이 짐작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여홀’에서는 ‘홀’이 아닌 ‘홀’로 나타났는지는 약간 의문이지만 결과적으로, ‘여울’이 된 것은 이런 의문을 보완시켜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여울’의 {울}은 앞의 ‘개울’의 {울}과 같은 자립 형태소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음운 탈락을 겪은 것이 확실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울’과 ‘여울’은 결국 두 형태소가 결합하면서 음운이 탈락함으로 hiatus를 이룬 것이다. 그러나 ‘여울여울’의 ‘여울’은 앞의 ‘여울(灘)’과 같은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울여울’(불길이 번져 가는 모습)은 의태어이므로 ‘여울(灘)’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울여울’은 ‘너기다>너기다>여기다’처럼 ‘너블너블>너블너블>너울너울>여울여울’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는 체언과 체언의 결합이 아니고 용언 어간 {넙(廣)-}에 접미사 {울}이 결합하면서 /ㅁ/이 변화하여 생긴 hiatus라고 생각한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10b)의 ‘개울, 여울’이 합성어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 합성어에서는 왜 hiatus 회피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는 본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語義를 분명히 드러내려는 심리적 인식 때문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합

성어에서 hiatus 회피가 적용되어 어형이 변화되면 의미 인식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10b)이다. 실제로 (10b)는 (10a)나 (10c)보다 합성 어임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면 (10b)는 어떻게 두 모음 사이에 자음이 탈락하여 어형 변화가 일어나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이는 두 형태가 결합하여 나타내는 의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0a)는 두 형태의 의미가 다 살아서 작용하는, 소위 공식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0b)는 두 형태의 의미보다 ‘내(川)’라는 하나의 의미가 言衆의 머리 속에 먼저 떠올라 흡사 하나의 형태소처럼 인식되어, 형태소 내부의 음운 현상과 軌를 같이 하는 통시적 현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10d)에서도 볼 수 있다. 즉 ‘따옴-표’의 ‘따옴’은 ‘따다’와 ‘오다’의 두 의미보다 ‘인용’의 의미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사전에서도 흔히 합성어에 사용하는 하이픈을 넣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ㄴ. 파생어에서 hiatus

(11) a. 가-어음, 개-아그배나무, 개-아마, 개-오동나무, 개-오미자,
개-웃나무, 비아냥-거리다, 비웃다

b. 기엄기엄, 더욱²⁴⁾, 뜨악하다, 뜨음하다, 띄엄띄엄, 보아지²⁵⁾, 쉬엄쉬엄, 이엄이엄, 죄암죄암/죄엄죄엄, 죄암질/죄엄질, 죄암-발이/죄엄-발이, 쥐엄-나무, 주암-옹두리²⁶⁾, 패암(팸)

위 (11a)는 접두사가 연결된 것이고, (11b)는 접미사가 연결된 것이다, 그러나 둘 다 hiatus 회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접사 연결에서는 hiatus 회피

-
- 24) ‘더욱’의 15세기 어형은 ‘더욱’이다. 의미로 보아 {더(加)+욱}으로 보는 것이 무난할 것 같다. 다만 접미사 ‘-욱’을 다른 어휘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흠이다. 그래서 ‘더우기>더욱’을 근거로 {더(加)+오(사동)+기/괴}를 가정해 보았으나, 17세기 이전 문헌에는 ‘더오기/더우기’가 보이지 않아, 이 가정도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다소 미흡하나마 본고에서는 잠정적으로 ‘더(加)+욱→더욱>더욱’으로 보고자 한다.
- 25) ‘보아지’는 ‘판자집 같이 작은 집에 있어서의 들보 구실을 하는 것’으로, ‘보(梁)+아지’가 분명하다. 이는 ‘송아지’에서와는 달리 hiatus 회피가 없는 것이 특이하다.
- 26) ‘주암옹두리’는 ‘주먹 모양으로 생긴 쇠뿔의 옹두리’로 ‘주암’은 ‘쥐암’에서 ‘ㅣ’가 탈락하였거나 아니면 ‘좁암’에서 ‘ㅁ’이 탈락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암’의 앞 형태가 전부 동사 어간인 점을 감안하면 전자가 확실할 것 같다.

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어간(또는 어근)과 접사를 구별지어 의미를 쉽게 인식하려는 언중의 발음의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 해석이 어간과 접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언중이나 어린이의 언어 습득에서도 가능한 것일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그것은 언어사용 즉 언어활동이 문법 지식을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또는 의미) 전달을 위한 자연 상태의 발화라는 점에서 보면 쉽게 이해되기 때문이다. 즉 예를 들어 ‘뜨악하다’고 할 때는 어간의 의미 ‘뜨다’가 쉽게 드러나지만, hiatus 회피가 적용된 “딱하다”고 할 때는 어간의 의미 ‘뜨다’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은 언중의 문법 지식이 아니라 자연스런 언어 감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린이의 언어 습득은 어른의 언어를 모방하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에 아무런 발음의식 없이 실현하여도 언어활동에서 잘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간과 접사를 구별지어 의미를 쉽게 인식하려는 발음의식이 영원히 계속된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노력 절약을 선호하기 때문에, 어떠한 제약으로도 이 본능을 물리칠 수는 없다. 즉 어간과 접사의 연결이 아무리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공시적 언어현상이라도, 긴 역사 속에서 보면 공시적 언어현상 그 자체도 통시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뜨악하다’로 볼 때 이 ‘뜨악하다’가 오랜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발음되다 보면, 어느 새 노력 절약의 본능에 의해 차츰 발음 길이가 짧아지다가 어느 시기 “딱하다”가 될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용언의 활용이다. 예를 들어 ‘보+아라’가 공시적 현상 그대로 유지된다면 언제나 ‘보아라’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 언어를 살펴보면 ‘봐라’ 또는 ‘바라’가 있다. 이는 ‘보+아라’의 공시적 현상이 긴 역사 속에서 차츰 노력 절약으로 진행되었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그래서 활용에서 우리가 흔히 滑音化니, 脫落이니, 短音化니, 完全順行同化니 하는 등등의 음운현상도 크게 보면 결국 노력 절약으로 진행되는 한 시기의 발음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 인간의 언어가 終局에 가서는 가장 단순한 형태로 되고 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은 자꾸 바뀌고 또 새로운 사실이 끊임없이 생겨나므로 생성과 재결합과 단순화가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체언과 조사의 통합에서 hiatus

- (12) a. 나는/사람은, 나를 /사람을
b. 코에, 나의²⁷⁾, 코(이)다

(12)의 예는 체언에 조사가 통합된 것이다. 그런데 (12a)는 아주 질서 정연하게 hiatus를 회피하고 있는데, (12b)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즉 처소격과 관형격 조사만이 hiatus 회피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유창균(1994 : 253,461)에 보면 향가에서 처소격 조사와 관형격 조사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²⁸⁾.

- (13) ㄱ. 처소격 ㄱ/괴 → ㅎ/회 → 의
 (中) (希) (衣)(矣)
 ㄴ. 관형격 矣 → 矣 → 衣(矣)
 (디) (릭) (의)

그리고 ‘衣’도 상고음에서는 聲母가 ‘γ-’이었음을 고구려 지명(巖-巴衣-波衣)을 근거로 추정하였고(250), 또 ‘矣’에 대해서도 吏文과 한자음을 근거로 ‘디(되)’로 추정하고, 이의 변화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250-251)

- | | | | |
|------|-----|-----|-----|
| (14) | A | B | C |
| 希 | χ-괴 | h-회 | h-회 |
| 衣 | γ-회 | Ø-의 | Ø-의 |
| 矣 | d-디 | Ø-의 | Ø-의 |

그런데 지금까지 향가 해독에서 여러 학자들의 처소격 조사와 관형격 조사에 대한 견해가 위의 주장과는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²⁹⁾, 이를 확실한 근거 없

27) ‘나의, 너의’는 문어에서만 있고 현재 구어에서는 ‘내, 네(>니)’로 나타난다.

28) 처소격 조사로 새겨지는 것으로 ‘也中, 良中, 惡中, 中, 希, 惡希, 矣, 未, 衣, 良衣’를 들고, ‘希, 惡希, 矣, 未, 衣, 良衣’는 ‘中’과 같다고 하였다. 그것은 遺事歌에서 ‘也中, 良中, 惡中’으로만 나타나던 것이 均如歌에서는 ‘也中, 良中, 惡中’으로도 나타나고 ‘中’ 단독으로도 나타나므로 ‘良中’과 ‘中’은 均如歌에서는 병존 형태라고 보고 (12ㄱ)과 같이 정리하였다.(247-253 참조.)

29) 김승곤(1989,25-33)은 향가에서 위치자리토씨로 쓰인 것으로 ‘中, 良, 良中, 良衣, 矣, 衣, 希, 衣希, 阿希, 也中, 未’으로 보고, ‘矣, 衣, 良衣, 阿希, 希, 衣希, 未’ 등은 표음적 표기

이 부인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주장을 받아 들여 지금의 처소격 조사 ‘에’와 관형격 조사 {의}가 (13)과 같이 통시적으로 음운 탈락을 겪은 것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음운 탈락의 결과로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과의 통합에서도 그대로 음절을 유지하여 hiatus 회피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처소격 조사와 관형격 조사가 (12)와 같이 음운 탈락을 겪지 않았더라도 hiatus 회피를 거부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두 조사의 음절 구조상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즉 hiatus 회피를 보이는 지정 조사 {은}과 목적격 조사 {을}은 음절 구조에서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과 통합할 때 각각 모음 /ㅡ/가 탈락하고 음절 말음인 자음 /ㄴ/과 /ㄹ/만이 남아 체언에 붙거나 아니면 본래의 음절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조사를 증가시켜 ((ㄴ+은>))와 ((ㄹ+을>))를 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처소격 조사 {에}와 관형격 조사 {의}는 앞의 두 조사와는 음절 구조가 다르다. 처소격 조사 {에}는 單母音으로서 弱母音이 아니기 때문에 탈락할 수 없고, 관형격 조사 {의}도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다음에서 /ㅡ/가 탈락하고 /ㅣ/(반모음)가 체언에 붙어 음절 축약하거나(예를 들면 ‘나+의>내, 소+의>쇠’와 같다.) 아니면 /ㅡ/가 탈락하고 /ㅣ/가 체언에 붙어 음절 축약을 할 수 없을 때 {은, 을}처럼 다시 {의}가 증가되어도 한 음절을 이룰 수 없으므로 본래 그대로 남아 hiatus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소리의, 기계의, 겨레의’ 등이다.) 그러나 이 설명 방법은 /ㅡ/가 탈락

로 ‘中, 良, 良中, 也中’ 등은 혼차 내지 약혼차적 표기로 보아, ‘中’(아의)를 기저형으로 잡아 ‘中’ 一字로는 ‘아의’로 읽기 어려우므로 약혼차 ‘良’(아)와 약혼차 ‘中’(의, 회/히)를 합해서 ‘良中, 良衣’으로 표기하였다고 하면서, 위치자리토씨의 변천을 아래와 같이 도식하여 보였다. (위 내용은 필자가 요약한 것임)

	신라시대	고 려 시 대	이조시대
(	良中(아의)-----	[良衣(어의)---어+]	-----에
		[阿希(아회)---아의---아+]	-----에
	衣希(의회)-----		의의-----의/의
中--	良(애/에)-----	良(애/에)-----	애/에
	矣(의)ㅣ	衣(의)-----	의/의
	衣(의)ㅣ		
	希(회)-----	의-----	의/의
	也中(여의)-----	여+]	-----에

하고 /l/가 체언에 붙어 음절 축약할 수 있는 데도 그대로 남아 hiatus를 이루기 때문에(예를 들면 ‘나라의, 봉어의’ 등이다.) 올바른 설명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설명하여야 할까? 이는 두 형태의 처음 결합에서는 hiatus 회피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두 형태의 처음 결합에서부터 hiatus 회피가 적용되면 어형의 변화가 일어나 의미 인식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중세 국어의 사동·피동 접미사가 개입된 표기이다. 왜냐하면 당시 표기 원칙이 연철이면서도 사동·피동 접미사는 분철 표기하였기 때문이다(26e 설명 참조). 이는 형태소의 결합에서는 분명한 의미 인식을 위해 본형태 그대로 결합시켜 발음하였음을 입증하기 때문이다.(이를 더욱 확실히 입증하는 것이 한자어이다. 만약 한자어에서 hiatus 회피가 적용된다면 본어형의 의미를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자어에는 원칙적으로 hiatus 회피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초소격 조사와 관형격 조사가 체언과의 통합에서 hiatus 회피를 거부하는 이유는 두 형태의 결합에서 어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의미 인식을 쉽게 하려는 연중의 심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형태의 결합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차츰 발음 편의주의로 진행되어 hiatus 회피 쪽으로 나가는 것이다³⁰⁾. 이는 앞에서 음운 현상이 시간을 두고 진행된다는 설명과 부합하는 것으로, 어형의 변화가 있어도 본어형이 쉽게 짐작될 때는 의미의 인식에 지장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음운 현상의 적용은 一律의이 아니라 사용 빈도와 음절을 구성하는 음운의 자질에 따라 진행 속도가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한자어의 음운 현상이다. 한자어는 의미 인식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형 변화가 생기는 음운 현상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한자어도 고유어처럼 쓰이게 되어 어형이 변화되어도 본어형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어휘는 음운 현상의 적용을 받는 것을 다음 예로써 알 수 있다³¹⁾.

30) 방언에서 (11b)는 반모음 삽입 또는 모음 완전 순행 동화가 일어나 [코예] 또는 [코오] 등으로 hiatus 회피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31) ①~④의 예들은 방언에서 볼 수 있으며, ②의 구개음화는 생산적이 아니고 통시적 현상이 습관적으로 유지되어 온 사실로, 지금은 아주 老齡層에서만 볼 수 있고 대부분 ④의 語頭子音下 單母音化를 선택하고 있다.

- ① hiatus 회피 - 소인(小人)네>천 : 네, 주인(主人)>천 :
 ② ㄷ蓋音化 - 효자(孝子)>소자>소자, 형님>성님>성님
 ③ i-umlaut - 하필(何必)>해필, 소 : 견(所見)>쇠 : 견>시 : 견
 ④ 語頭子音下 單母音化 - 효자(孝子)>호자, 형님>형님

위 예들은 결국 어휘에 따라 음운 현상의 적용이 다르고, 두 형태의 결합에서 어형의 변화가 있어도 본어형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때는 음운 현상의 적용을 받는 것을 아주 잘 나타내 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가 '내'로 되는 것은 본어형을 쉽게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며, '나라의'가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은 본어형의 짐작이 어려워 의미 인식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서술격 조사 '이다' 때문에 일어나는 hiatus 현상을 살펴보자. 서술격 조사 '이다'의 {-이-}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이어질 때, 文語에서는 나타나고 口語에서는 탈락되고 나타나지 않는다.³²⁾ 그래서 굳이 hiatus 회피 거부로 볼 필요가 없겠지만, 앞에서 형태소 결합에서는 의미 인식을 위해 hiatus 회피가 거부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설명을 덧붙인다. 즉 문어에서 {-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처음 형태소의 통합에서는 의미 인식을 위해 hiatus 회피가 분명히 거부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구어에서 {-이-}가 탈락되고 나타나지 않는 것은 차츰 발음 편의에 따라 hiatus 회피로 진행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공시적인 음운 현상도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 통시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좋은 예라고 할 것이다.

4. 어간과 어미의 통합에서 hiatus

- (15) a. 가+아라 → 가아라 자+아라 → 자아라
 b. 가+아도 → 가도 자+아도 → 자도

(15a)에서도 hiatus 회피 거부를 볼 수 있다. 생각에 따라서는 '가아-', '자아-'를 장모음으로 보아 hiatus 회피로 볼 수 있겠으나 그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이 어휘들은 특이하게도 명령형 {거라}를 갖던 것이었는데 요즘 와서 {아

32) 방언에서는 '떡가? 밥가?'에서 보듯이 의문형일 경우 자음 다음에서도 {-이-}가 탈락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지금 낱장 설명하기는 어렵다.

라)로 바뀌어진 것이기 때문이다³³⁾. 이를 증명하는 것이 (15b)이다. (15b)에서는 장음이 없는데 (15a)에서 장음을 볼 수 있는 것은 (15a)의 형태소 통합이 생소하여 의미를 분명히 드러낸다는 입장에서 hiatus 회피를 거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6) 좋아도, 넣어라, 넣으면, 놓으니

(16)은 실제 발음에서 /ㅎ/이 두 모음 사이에서 마찰성을 잃고 묵음되어 [조아도, 너어라, 나으면, 노으니]로 되어 hiatus가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hiatus 회피를 선택하지 않는 것은 음운이 발음되지 않아도 음절을 그대로 유지하여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7) a. 가웃(갹+웃), 겨운(겹+은), 고운(곶+은), 고이(고비/곶+이), 구운(곶+은), 구울(곶+울)도리³⁴⁾, 기움(깁+음), 노여움(노엽+음), 누운(눙+은), 다이(다비/답+이), 더운(뎍+은), 도움(뚱+음), 매움(맵+음), 미운(밎+은), 아까운(앗가뵐/아깁+은), 서운하다(섭+은+하다)³⁵⁾

b. 부어라(붓+어라), 이어(잇+어), 이엄이엄(잇+엄), 이영(잇+영), 저어도(젓+어도), 지으면(짓+으면).

위의 (17a)는 ㅂ불규칙에 의한 hiatus이고, (17b)는 ㅅ불규칙에 의한 hiatus

- 33) '자거라, 가거라'가 '자아라, 가아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아직까지 완전히 다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청자 대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거라, 가거라'는 확실히 '자아라, 가아라'보다 상대를 만만하게 보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과거 살기가 어렵고, 반상의 잔재가 얼마간 남아 있어, 지위의 상하가 뚜렷이 느껴지던 때는 '자거라, 가거라'가 오히려 당연시 되었다. 그러나 모두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고, 사회가 민주화되어 누구나 인권을 찾고, 평등을 부르짖게 되면서부터는, 아무리 손아래 사람이라도 만만한 말을 쓰기가 조심스러워 차츰 '자거라, 가거라'는 줄어 들게 되고, 대신 '자아라, 가아라'가 세력을 얻어 널리 쓰이게 된 것이라고 본다.
- 34) '구울도리'는 굴도리 즉 '둥글게 만든 도리'이다. 이는 '곶+울>구뵐>구울>굴'의 과정을 밟는 것이다. 여기서 '구울>구울'은 異化作用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 35) '섭+은+하다'에서 관형형 어미 다음에 '-하다' 접미사가 붙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개운하다. 애운하다'가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로 보면 고대국어에서는 관형형 어미가 명사형 어미처럼 기능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예가 중세국어에도 몇 개 보이는데, 예를 들면 '다얏 업슨'의 경우이다.

로, 이는 두 형태가 통합하면서 음운의 변화와 탈락이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hiatus 회피를 거부한다고 볼 수 있다.

- (18) 조아팔다 - 많은 물건을 조금씩 헐어 팔다.
조아리다 - 황송하여 고개를 숙이다. 쪼다.

‘조아팔다’의 ‘조아-’는 {조+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새가 모이를 먹을 때의 ‘조아’와 ‘조아팔다’의 ‘조아’가 의미나 형태에서 아주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廉이 mre 가 을오 어르물 쫓고 어든대”(續三綱, 孝子圖, 姜廉鑿氷)라는 기록이 있어, ‘쫓다’의 中世語形이 ‘쫓다’였음을 알 수 있고, ‘쫓다’가 ‘쪼다’로 어형 변화되었음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조아-’와 ‘쪼아-’는 같은 의미이며, 이것이 hiatus 회피 거부를 보이는 것은 /ㅅ/탈락을 알려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 ‘조아리다’도 “머리 조사 禮數亨 습고(月釋18:36), 니마조술 계: 稽, 니마조술 돈: 頓”(훈몽下26) 등이 있어, ‘조아리다’는 ‘쫓+울(명사화 접미사)+이다>조스리다>조아리다’로, /ㅅ/이 변화하여 탈락하면서 생긴 hiatus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hiatus 회피를 거부하는 이유는 음운이 탈락한 뒤에도 음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 (19) 주+어야→주어야/주우야/조오야/줘:야
쫓+아도→쫓아도/쫓오야/쫓:야
기+어→기어/가이, 피+어도→피어도/피이도
쉬+어라→쉬어라/쉬이라

(19)의 예는 형태소 경계를 사이에 두고 hiatus가 발생할 때 임의적으로 회피함을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hiatus 회피 거부 현상이 강하지만, 지역에 따라 또는 발음 상황에 따라 hiatus 회피 현상도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처음에는 형태소 경계에서 무조건 hiatus 회피 거부이었으나, 차츰 발음의 편의에 따라 hiatus 회피 쪽으로 진행된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는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공시적 음운 현상도 통시적 음운 현상 속에 한 단면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특히 지역적으로 음성 형이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은 언어사용이 사회적 영향을 받아 습관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시적 음운 현상에 역사성이 없다면 두 형태의 이상의 결합에서 음성형은 언제나 형태 그대로 이어야 한다. 그리고 언어사용이 사회적 영향을 받지 않고 순전히 노력 절약에 따라 음성형이 실현된다면, 지역적 방언은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의 음성 실현형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음성형을 다 도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경향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공시적 음운 현상인 (19)의 예가 지역적으로 음성형이 하나의 경향을 이루고 실현되는 것은 공시적 음운 현상도 역사성을 가지고 사회적 영향을 받아 실현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언어 습득도 사회적 영향임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 (20). a.파+아라→파라, 서+어라→서라 (동모음 삭제³⁶⁾)
 b.보+아도→봐 : 도, 주+어도→줘 : 도 (w활음화)
 c.오+아도→와도³⁷⁾ (w활음화와 단모음화)
 d.이+어도→여도, 지+어도→저도 (y활음화)
 e.캐+어도→캐애도, 빼+어도→빼애도³⁸⁾ (모음 완전 동화)
 f.하+아도→해애도(하여도)³⁹⁾

- 36) 동모음 삭제는 처음 두 모음이 이어져 장모음이 되었다가 이것이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단모음으로 된 것이다. 그것은 '가아라'와 '가도'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37) (19c)는 (19b)와 비교하여 장모음화를 거쳐 단모음화한 것으로 보며, (19c)는 (19b)보다 한 단계 진행이 빠른 것이다.
 38) 모음 조화 규칙에 따르면 {캐-,빼-} 등의 어간 다음에는 {-아도}가 와야 옳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뺨아도,맷아도' 등이다. 그러나 발음이 없는 어간 {캐-,보내-}에 있어서는 '캐어도,보내어도'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캐+어도, 빼+어도}로 표기한 것이다.
 39) '해애도'의 음성형 도출 과정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는다고 생각한다.

- | | | | |
|-------------|------|---------------|----------|
| 1. 기저 형태 결합 | 하+아도 | 2. 반모음 삽입 | 하+ +아도 |
| 3. 이중 모음화 | 하+야도 | 4. 모음 역행 동화 | 해+야도 |
| 5. 단모음화 | 해+아도 | 6. 모음 완전 동화 | 해+애도 |
| 7. 음성형 | 해애도 | | |

이와 같은 음운 과정의 想定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므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나, 이 문제는 본고의 주제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별도로 미룬다. 다만 {맷+아도,갈+아도,파랑+아도}에서 음성형 [마내애도,가태애도,파래애도]로 나타나는 데 이는 {맷-,갈-,파랑-}이 中世國語에서 {만ㅎ-,갈ㅎ-,파라ㅎ-}였기 때문이며, 지금 이런 음성형이 도출되는 것에 대하여 최명옥 (1985,177-178)에서는 어간의 재구조화로 보았다.

(20)의 예는 각각 방법은 달라도 (20b)를 제외하고는 이미 hiatus 회피 쪽으로 진행되었음을 알려 주는 예들이다. 그리고 (20b)도 hiatus 회피 쪽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 주는 예이다. 그것은 아직도 ‘보아도, 주어도’가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 (21) a. 가오, 가시오, 아니오, 믿으오, 예쁘오, 기쁘오,
b. 가오니, 먹사오니, 듣자오니
c. 가옵소서, 먹사옵고, 듣자옵고
d. 책이올시다

(21a)는 존대를 나타내는 형태소 {으오}가 어간에 연결되면서 발생한 hiatus이다. 이 존대 형태소 {으오}는 서정목(1988, 1990)과 서태룡(1992)에 따르면 {읍(<습)}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한다⁴⁰⁾.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 (21a)의 hiatus는 결국 /ㅂ/이 변화되어 생긴 것이고, (21b)는 통시적으로 {습, 습, 줍}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이것도 역시 /ㅂ/이 변화하면서 생긴 hiatus이다. 그리고 (21c)는 (21b)의 {오, 사오, 자오}에 다시 {읍(<습<습)}이 첨가되어 재구조화하여 {읍, 사읍, 자읍}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1d)는 지금 구어에서는 쓰이고 있지 않아, 본고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과거 이런 어형이 있었다는 사실을 개유하는 입장에서 항목에 넣은 것이다. 그러나 이 어형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우선 {-이오+르시다}로 분석해 볼 수 있고, {-르시다}는 다시 재분석되어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21d)의 hiatus도 {-이오+르시다}로 본다면 /ㅂ/의 변화로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21)의 예는 모두 음운의 변화로 발생한 hiatus이기 때문에 의미 보존을 위하여 hiatus 회피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재구조화는 달리 보면 두 형태의 결합에서는 가능한 한 본어형(ㅎ+아도)을 그대로 유지하려던 화자의 심리가 무의식적으로 계승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0) 이를 짐작할 수 있는 것으로 ‘-하시압’ 하는 표기를 드물게 볼 수 있는데, 이 때 {압}은 {읍}에서 왔다고 할 수 있고, 이 {읍}이 {으오}로 되었다고 하면 ‘-하시압>하시오’가 성립되어, {으오}가 {읍(<습)}에서 변화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5. 용언의 어간과 접미사의 통합에서 hiatus

- (22). 되우 - 매우, 아주, 심하게 뽕통
※대고 - 무리하게 자꾸, 대고 조르다

‘되우’는 방언에서 ‘되구’(음성형[대구])로도 쓰이고 있다. 그래서 ‘되우’는 ‘되구’에서 /ㄱ/탈락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hiatus 회피를 거부하는 이유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되우’가 ‘되구’에서 나왔더라도 ‘구’의 정체는 무엇인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쓰이지 않지만, ‘되우’와 형태상 비슷한 ‘세우’와 함께 보기로 한다. “善男善女들히 듣고 세우 제 닻ᄃ면(月釋21: 109), 담배에 세우 침을 뱉어(춘향전)” 등을 볼 수 있는데 이 ‘세우’와 ‘되우’를 형태 분석하면 {세(强)+우}와 {되(甚,强)+우}가 가정된다. 그러면 {우}는 무엇일까? 이는 결론적으로 부사화 접미사라고 본다. 즉 ‘세우=세게/기’, ‘되우=되게/기’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 앞서 말한 방언의 ‘되구’의 {구}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것도 결론적으로 {구}가 원형이고 {우}는 /ㄱ/탈락형이라고 본다. 그러면 {구}는 무엇이며 어디서 온 것일까? 이는 ‘세지, 되지’를 가정하여 田光鉉(1976)에 비추어 보면, 앞의 ‘되구/되기/되게’가 ‘되지’에서 분화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것은 예를 들어 중세 국어에서 볼 수 있는 ‘모지(蚊)/모긔/모괴, 호미(鋤)/호미/호외/, 나비(蝶)/나비/나뵤’가 남원 지역어에서는 ‘모구, 호무, 나부’로 분화·발달하였고, 중부 방언에서는 ‘모기, 호미, 나비’로 분화·발달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쉽게 짐작되기 때문이다. 단정한 가지 다른 점은 田光鉉(1976)에서 대상으로 한 어휘들이 전부 명사임에 비하여, ‘세지, 되지’의 {-지}는 부사화 접미사라는 점이다. 그러나 중세 국어에서 보던 {-지/긔}가 명사화 접미사와 부사화 접미사(부사형 어미)로 두루 쓰였기 때문에 이는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본다. 다음 예를 보자

- (23) a. 두 놀개 쏘시(월석1: 14), 족점개(훈몽 中14), 平牀 벼개에 니기 자거든(杜解4: 13), 노리개(佩, 훈몽 中23)
b. 柳 들개를 다대아(杜解2: 32), 글개 포(鉤, 훈몽 中16)
c. 膽은 뜰개라(金三2: 32), 돛터 뜰개(馬解下66), 쓸긴 담(倭解上18) 업던 번개를(龍30장), 번개 티돛(武藝圖譜18), 번긔: 閃電(齊物, 天文)
d. 닳갓 돌긔(救急簡易方1: 72), 附子 므긔(重, 救急方, 上38)

- e. 향므틴 놀애로(思美人曲), 놀애를 브르리 하디(龍13장)
 f. 울에 우르드시(杜解2: 70), 明月入 洞에에 느려(杜解24: 24)

- (24) a. 우리를 出家^ㅎ게 ^ㅎ쇼셔(석11: 6), 몬득 證^ㅎ시게 호리라(釋序18)
 b. 正^ㅎ 더 가^ㄱ 호니(석11: 6), 一切受^ㅎ苦를 다 버서나^ㄱ(월석25)
 c. 수비 알^에 ^ㅎ야(월석序12)
 d. 드트리 드외의 봇아디거늘(석6: 31)
 e. 사르물 알^의 ^ㅎ는(釋序1), 世尊入神力으로 드외의 ^ㅎ산(석6: 7)

위 (23)의 명사화 접미사 {개/게/기/괴/애/예}와 (24)의 부사화 접미사(부사형어미) {개/괴/예/의/의}가 완전히 합치하지는 않으나 {-기}가 명사화 접미사와 부사형 어미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짐작 된다. 왜냐하면 (23, 24)의 표기를 볼 때 {개/게/기/괴}가 일정한 규칙 없이 쓰이고 있어 음성상 매우 유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고, 특히 (24d)를 /ㄱ/이 탈락하지 않은 형태로 간주하면 그 가능성이 더욱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기, 되기’ 등의 {-기}가 부사형어미이기 때문에 앞의 ‘모기, 호미, 나비’ 등과 분화 양상을 달리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세구, 되구’는 남원지역어형이라고 할 수 있고, ‘세기, 되기’는 중부 방언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계, 되게’는 단모음화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우, 되우’는 의미나 음운 구조로 보아 ‘세구, 되구’에서 /ㄱ/ 탈락되어 hiatus 회피 거부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표준어의 ‘대고’는 ‘되우’와 어떤 관계의 것일까? 이는 의미상으로 보아 ‘되구’에서 변화한 것으로 본다. [대]와 [되]는 유사음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현재에도 [되]와 [대]가 유사음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는 ‘고’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대고’는 ‘대구’에서 나왔고, ‘되우’가 ‘되구’에서 나왔음을 지지하는 형태라고 본다. 왜냐하면 ‘대고’가 ‘되구’와 의미상 동일하고, 형태상 유사하기 때문에 ① ‘되구>되우’, ② ‘되구>되고(대고)’가 想定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되구’가 ‘대고’로 변화한 원인은 무엇일까? 이를 한마디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되’와 ‘대’는 유사음이고 ‘구’는 부사형 어미 {-고}에 유추되었거나, 아니면 음모음화⁴¹⁾의 과도 교정 형태라고 본다.

41) 여기서 음모음화는 ‘아바님>아버님, 나모>나무, 대초>대추, 마조>마주, 도도다>도두다, 비호다>배우다, 하고한>허구헌’처럼 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남광우 (1975)를 참조하기 바람.

- (25) a. (발에) 차인다/채인다 (자동차에) 치인다
 (벌에) 쏘인다 (눈에) 보인다
 (땀이) 쓰인다 (눈이) 뜨인다
 b. (바람을) 쐬 : 다 (눈에) 찼 : 다
 c. (바람을) 쐼 : 다 (눈에) 찼 : 다⁴²⁾
 d. 차였다. 파였다. 쏘였다. 보였다.
 e. 대이다

(25)는 전부 피동 접미사가 삽입된 형태이다. (25a,e)는 hiatus 회피를 거부하지만, (25bcd)는 hiatus 회피를 보여준다. (25bc)형은 어간 말모임과 피동 접미사가 먼저 축약하고, 다음에 과거 시제 표지의 모음이 탈락하고 있다. 그러나 (25c)는 피동 접미사가 먼저 반모음(또는 활음)으로 되어 과거 시제 표지와 축약하여 이중 모음이 되어 hiatus 회피를 보인다⁴³⁾. (25e)는 ‘대다’에 피동 접미사가 개입한 꼴인데, ‘대다’는 중세국어에서 ‘다히다’로 나타난다. 이는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당이다’였을 것이다. 그런데 ‘다히다’는 그 의미가 사동이었는데, /ㅎ/이 없어져 ‘대다’가 되고는 사동의 뜻이 없어진 것이 특이하다.

어쨌든 (25)의 예는 형태소 경계에서 처음은 무조건 hiatus 회피 거부이나 차츰 hiatus 회피 쪽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것은 hiatus 회피 거부형인 (25a)의 ‘쏘인다, 뜨인다’가 (25b)에서 ‘쐬다, 찼다’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25a)가 (25b)의 hiatus 회피 쪽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5cd)도 같은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26) a. 깨우다/깨우치다, 끼우다, 데우다, 떼우다, 메우다.비우다, 새우다, 외우다, 지우다, 치우다, 피우다, 휘우다/휘우듬하다/휘우듬히/휘우똥/휘우똥거리다/휘우똥하다/휘우청하다/휘움하다.
 b. 세우다, 재우다, 채우다, 태우다.
 c. 키우다
 d. 띄우다, 씌우다, 띄우다⁴⁴⁾

42) 이 ‘쐼-’의 /ㄴ/을 /i/의 하향 이중 모음으로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쏘이, 주이’가 ‘쐼, 쐼’로 되는 것을 보면 ‘쐼-’의 /ㄴ/은 /i/로 보는 것이 당연할 것 같다. 그것은 {띄+었-}이 {쐼-}으로 될 때 /ㄴ/이 탈락된다는 것은 ‘띄-’의 /ㄴ/이 /y/가 아니라 /i/임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43) 방언에서는 (24d)도 ‘차있다, 치있다, 쏘있다, 보있다, 쓰있다, 뜨있다’로 과거 시제 표지의 모음이 탈락하고 있다.

44) (25f)의 /ㄴ/도 주 19과 같은 것으로 본다.

e. 고인돌.

(26)의 예들은 모두 사동 접미사가 개입하여 발생한 hiatus이다. (26b,c,d)는 이중 사동을 보이는데, 이는 (26e)로 보면, 처음에는 {-이-}만이 개입되었을 것이나, 피동형과 변별이 분명하지 않아, 다시 {-우-}를 증가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26b,c,d)는 세 모음이 연속되므로, 앞의 두 모음이 축약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이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더 천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6c)는 (26d)와 비교하여 어간 말모음이 탈락하는 것이 특이한데, 이것은 과거 농경시대에 아주 많이 쓰였던 어형이므로 (26d)보다 어형변화가 한 단계 빠른 것이라고 본다. (26e)의 사동형은 일종의 화석형으로 남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고이다'가 지금 표준어에서는 '괴다'로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동의 뜻도 없어져버렸다. 이는 '괴이다'로 증명된다. 왜냐하면 '괴다'에 사동의 뜻이 없기 때문에 사동 접미사 {-이-}가 다시 개입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다히다'가 '대다'로 되면서 사동의 뜻이 없어진 (26e)와 완전히 일치한다. 그래서 사동 접미사가 어간과 축약하여 형태를 잃게 되면 사동의 의미도 따라 잃는다는 결론이 된다. 이로 볼 때 중세국어에서 사동 접미사를 앞 음절의 종성과 연철시켜 표기하지 않고 독립 음절로 분철 표기한 이유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사동 접미사를 분철 표기하여 사동의 의미가 분명히 인식되도록 한 표기의식이라고 하겠다.

(26)의 예들이 전부 hiatus 회피 거부를 보이는 것은 역시 사동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통합되는 형태를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다.

(27) 깨우다 : ① 먹은 것을 도로 토하다. ② 텅없이 차지했던 남의 재물을 도로 내놓다.

(27)은 (26)과 비교하여 볼 때, 얼핏 사동 접미사가 개입한 형태로 보이나, 어근을 짐작할 수가 없다. 이는 필시 이른 시기 사동 접미사가 개입하여 쓰이다가 어근의 뜻이 잊혀진 것이 아닐까 싶다. 예를 들면 '가두다'를 '거두다'와 비교하건대 사동형이 틀림없을 것 같으나 어근 {간-}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다. 또 '나누다(누호다)'도 필자의 생각으로는 사동 접미사가 개입하여 굳어진 {누(어근)+호(사동)+다}가 아닐까 싶다. 그것은 방언에 '누가른

다'가 있기 때문이다. 즉 '논가르-'를 '논=가르-'의 의미 중복형으로 본다면, 이때 {논-}은 {논-}과 대응하는 어근이 되고 {호}는 사동 접미사로 '논호-'가想定된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드토다, 녀토다'가 있는데, 이는 {돌(走)+호+다, 녀(薄)+호+다}로 분석되기 때문에 평행적이 된다. 이로 미루어 '나누다'가 {논+호+다}에서 나왔다고 볼 때도, 어근 {논}을 어간으로 하는 용례가 없기 때문에, {논+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27)의 '게우다'도 '가두다, 나누다'처럼 어근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게우다'는 {게(어근)+우(사동)+다}로 추정할 수 있지만,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27)의 '게우다'를 꼭 사동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두 모음 사이에 어떤 자음이 개재하였다가 탈락하였을 경우도 가정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어쨌건 (27)의 '게우다'가 hiatus 회피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사동 접미사가 개입한 것이거나, 아니면 모음 사이에 자음이 탈락한 것이라고 본다.

(28) 재웠다, 세웠다, 깨웠다, 치웠다, 키웠다, 띄웠다

(28)은 (26)의 형태에 과거 시제(또는 완료상)표지 {었}이 개입된 것인데, 모두 사동 접미사 {우}가 반모음화하여 hiatus가 소멸되었다. 이는 모음이 너무 중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이중 사동형이 될 때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국어에서는 세 모음 이상이 중첩하면 hiatus 회피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감탄사와 의성어에서 hiatus

- (29) a. 아이(고/구), 에이(더러워라), 우야!, 후어이!
b. 까악까악, 야옹야옹, 아웅다웅, 꼬기오, 따옥따옥,
비오(술개 우는 소리)

(29a)는 감탄사에서 나타나는 hiatus이고 (29b)는 의성어에서 나타나는 hiatus이다. (29a)가 어떻게 hiatus 회피를 거부하는지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우야'를 바탕으로 생각하건대 아마 두 개의 감탄사 즉 {우+야}가 합해져서 '우

아'가 된 것처럼, '아이'와 '에이'도 {아+이}, {에+이}로 된 것이 아닐까 싶다. 그것은 보통 감탄사가 '아!, 오!, 우!, 어!'처럼 외마디가 정상적이기 때문에 '아이, 에이'처럼 두 음절의 감탄사는 두 형태의 결합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말 깜빡했을 때는 '아! 참'이지 '아이, 참'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이, 참'은 꽤 여유로울 때 내는 소리이고, 다급할 때 내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는 {아+이}가 확실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때 {아}는 감탄사이고 {이}는 흡사 조사처럼 붙어 나는 소리로, 이런 구조의 발음은 영어에도 '하이'가 있고, 일본어에도 '하이'가 있으며, 국어에도 '으이'가 있어, 그럴 듯한 생각이 든다. 또 옛날 우리 나라 使令들이나 하인들이 상전이 부를 때 '에이'하고 대답하는 것을 보아도 그럴 듯하게 여겨진다. 그리고 '에이'는 {어+이}가 '에'로 재구조화되고, 다시 {이}가 붙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 감탄사들이 hiatus 회피를 거부하는 것은 두 형태의 뜻을 보존하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29b)는 동물들의 소리를 정확하게 模寫하려는 의도 때문에, 발음의 焦點이 노력 절약과는 상관없이, 실제음의 정확한 시늉에 있으므로, hiatus 회피가 관여될 수 없는 발음이라고 하겠다.

Ⅲ. 결 론

지금까지 현대 국어의 hiatus 회피 거부 현상을 살펴본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형태소 내부에서는 인접음의 영향으로 자음이 소별(탈락)하여 hiatus가 발생하나, 의미를 분명히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음운 탈락 후에도 음절을 그대로 유지하여 hiatus 회피를 거부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hiatus 회피 쪽으로 진행된다.

2. 형태소 결합에서는 무조건 hiatus 회피 거부로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려고

하나, 이것도 인간의 노력 절약의 본능 때문에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hiatus회피 쪽으로 진행한다. 이는 공시적 음운현상도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어느 일정 시기의 발음현상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3. 사동 접미사가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여 단모음으로 축약되면 사동의 의미가 없어진다. 이는 '다히다>다이다>대다, 고이다>괴다'로 알 수 있고, 이를 입증하는 것은 '대이다, 괴이다'이다.

4. 국어에서는 세 모음 이상이 연속되면 반드시 hiatus 회피가 일어난다.이는 이 중 사동의 형성과, 사동·피동 접미사가 개입하여 발생한 hiatus에 과거 시제(또는 완료상)표지 {-었-}이 연결될 때 알 수 있다.

5. 감탄사에서의 hiatus는 두 형태의 결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hiatus 회피가 거부되며, 그리고 의성어에서의 hiatus는 소리를 정확하게 묘사하려는 의도 때문에 hiatus 회피가 전연 관여될 수 없는 발음 상황이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김승곤(1989), 「우리말 토씨 연구」 전국대 출판부
- 김형규(1982), 「韓國方言研究」 서울대 출판부
- 김형규(1990), 「增補 國語史研究」一潮閣
- 남광우(1975), “單母音化·陰性 母音化 研究” 동양학5 (연세대)
- 남광우(1982), 「補訂 古語辭典」一潮閣
- 서정목(1988), “한국어 청자 대우 등급의 형태론 해석(I)” 국어학17
- 서정목(1990), “한국어 청자 대우 등급의 형태론 해석(II)”
강신항 교수 회갑 기념 국어학 논집
- 서태룡(1992), “국어 청자 대우법의 형태소” 동악 어문 논집27
- 성인출(1984), “呂寧地域語의 音韻論的 研究” 석사학위논문(계명대)
- 유창균(1994), 「향가비해」 형설출판사
- 유재원(1985), “현대 국어의 모음충돌 회피 현상에 대하여” 한글189, pp59~89
- 이기문(1991), 「國語語彙史研究」東亞出版社
- 이승녕(1947), “국어의 hiatus와 자음 발달에 대하여” 진단 학보15, pp50~89
- 전광현(1976), “남원 지역어의 어말-U형 어휘에 대한 통시음운론적 고찰”
- 최명옥(1985), “變則動詞의 音韻現象에 대하여” 국어학14
- 최운현(1990), 「國語研究 어디까지 왔나」東亞出版社 pp77~83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9), 「한국방언자료집」